

공적개발원조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 2005. 8 】



1963년 창립된 TNS 그룹은 전세계에 걸쳐,  
70여개국, 200여 개의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세계최대의  
선거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입니다



the sixth sense of business™

# 목 차

## 【 조사 개요 】

1. 조 사 설 계 ..... 1
2. 응 답 자 특 성 ..... 2

## 【 조사 결과 요약 】 ..... 3

## 【 조사 결과 】

1.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인지도 ..... 8
2. 개도국 대외원조 제공 찬반 ..... 9
3. 대외원조 제공 찬성이유 ..... 10
4. 대외원조 제공 반대이유 ..... 11
5. 대외원조 대상국 및 지원분야 결정시 우선 고려사항 ..... 12
6. 현재 대외원조 규모 평가 ..... 13
7. 향후 대외원조 규모 확대 찬반 ..... 14
8. 대외원조의 국제사회 및 국익 기여도 평가 ..... 15
9. 대외원조 최대 기여 분야 ..... 16
10. 대외원조 기여도 부정평가 이유 ..... 17
11.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지역 ..... 18
12.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분야 ..... 20

■ 별첨 1. 통계 편

■ 별첨 2. 설문지

# I. 조사설계

## 【1】 조사 방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2】 표본 설계

모 집 단

전국 만 20 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크기

1,000 명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pm 3.1\%p$  (95% 신뢰수준)

## 【3】 조사 진행

조사 기간

2005 년 8 월 18 일(목)

조사 기관

TNS Korea

## II. 응답자 특성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
전 체	1,000	100.0
지 역 별		
서울	217	21.7
인천 / 경기	261	26.1
대전 / 충청	100	10.0
광주 / 전라	108	10.8
대구 / 경북	108	10.8
부산/울산/경남	164	16.4
강원 / 제주	42	4.2
성 별		
남 자	494	49.4
여 자	506	50.6
연 령 별		
20 대	215	21.5
30 대	247	24.7
40 대	231	23.1
50 대 이상	307	30.7
학 령 별		
중 졸 이하	171	17.1
고 졸	341	34.1
대 재 이상	474	47.4
직 업 별		
농 · 임 · 어업	42	4.2
자 영 업	155	15.5
블 루 칼 라	95	9.5
화 이 트 칼 라	184	18.4
가 정 주 부	300	30.0
학 생	98	9.8
무 직 / 기 타	123	12.3
소 득 수 준 별		
150 만 원 이하	237	23.7
151 ~ 250 만 원	205	20.5
251 만 원 이상	345	34.5

### Ⅲ. 결 과 요약

#### 1.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인지도

명목 인지도 : 76.4%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모름/ 무응답	합 계
내용 인지도 : 37.1%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 으나 잘 모른다		
3.6	33.5	39.3	23.3	100.0

- 공적개발원조 제공사실을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 포함)’는 응답이 전체의 76.4%였으며,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경우는 37.1%였음.

#### 2. 개도국 대외원조 제공 찬반

찬성 : 62.3%		반대 : 34.2%		모름/ 무응답	합계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6.7	55.6	28.8	5.4	3.5	100.0

-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 제공에 반수가 넘는 62.3%가 찬성의향을 밝혀, ‘반대(34.2%)’보다 두 배 가량 높았음.

#### 3.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base :623명, 대외원조 제공 찬성층)

항 목	%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8.9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다	27.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6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18.6
기타	0.5
모름/무응답	0.7
합계	100.0

- 대외원조 찬성층은 그 이유로,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한다(28.9%)’는 점과 ‘과거 우리도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27.7%)’이라는 점을 주로 지적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위상 제고 때문’이라는 응답(23.6%)도 일정 수준 이상이었음.

4.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base : 343명, 대외원조 제공 반대층)

항 목	%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76.1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8.8
원조가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8.7
다른 나라의 문제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2
기타	0.9
모름/무응답	1.3
합계	100.0

-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76.1%)’는 점을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었음.

5. 대외원조 대상국 및 지원분야 결정시 우선 고려사항(복수응답)

항 목	% (복수응답)
국제적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	49.0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	47.3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	38.3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33.6
개도국과의 정치외교적 협력관계 증진	25.7
모름/무응답	1.9
합계	100.0

- 대외원조 대상국이나 지원분야를 결정할 때 ‘인도주의 실천(49.0%)’과 ‘개도국 빈곤 및 질병퇴치(47.3%)’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국익적 관점에 앞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외원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 6. 현재 대외원조 규모 평가

<b>확대 : 47.6%</b>		현재 수준이 적절	축소 되어야	모름/무응답	합계
크게 부족하므로 대폭 확대해야	현 수준보다 약간 확대해야				
7.1	40.5	35.8	13.0	3.6	100.0

- 우리의 경제발전이나 국력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외원조 규모(국민총소득의 0.06%, 1인당 8천원 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였으며,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35.8%였음. ‘축소’ 주장은 13.0%로 낮았음.

## 7. 향후 대외원조 규모 확대 찬반

<b>찬성 : 68.2%</b>		<b>반대 : 27.9%</b>		모름/무응답	합계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12.8	55.4	23.5	4.4	3.9	100.0

- 앞으로 5년 후에,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 금액을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0.1%까지 늘이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8.2%로, ‘반대(27.9%)’에 비해 크게 높았음.

## 8. 대외원조의 국제사회 및 국익 기여도 평가

<b>도움됨 : 59.7%</b>		<b>도움안됨 : 35.4%</b>		모름/무응답	합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9	50.8	32.7	2.7	4.9	100.0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이나 국가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평가가 59.7%로 높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4%로 조사됨.

9. 대외원조 최대 기여 분야(base : 597명, 대외원조 기여도 긍정평가층)

항 목	%
국제적 재난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	30.4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	25.1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15.9
개도국과의 정치, 외교적 협력관계 증진	13.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2.9
모름/무응답	2.5
합계	100.0

- 대외원조가 크게 기여하는 분야로, ‘국제적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에 의미를 부여한 국민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25.1%)’,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15.9%)’ 순으로 높았음

10. 대외원조 기여도 부정평가 이유(base : 354명, 대외원조 기여도 부정평가층)

항 목	%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41.9
너무 우리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서	18.9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서	17.6
원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10.4
원조할 기술과 인력이 부족해서	7.3
모름/무응답	3.9
합계	100.0

- 대외원조가 국익 등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경우 그 이유로는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41.9%)’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18.9%는 ‘지나친 경제적 이익 고려’를, 17.6%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무관해서’ 등을 이유로 지적함.

## 11.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지역

항 목	%
아프리카 지역	44.5
아시아태평양 지역	24.4
구소련 연방 등 중앙아시아 지역	11.0
중동 지역	8.4
중남미 지역	3.5
동유럽 지역	2.8
모름/무응답	5.4
합계	100.0

-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원조대상 지역으로 44.5%가 ‘아프리카 지역’을 꼽았으며,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24.4%)’, ‘중앙아시아 지역(11.0%)’ 순으로 나타남.

## 12.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분야

항 목	%
아동보호,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의 분야	26.4
재난구호 및 난민지원 등의 분야	23.3
의료·보건위생 등의 분야	23.1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15.1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	10.8
모름/무응답	1.3
합계	100.0

- 향후 대외원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아동/환경/인권보호 등의 분야’여야 한다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았고, ‘재난구호 및 난민지원 등의 분야(23.3%)’나 ‘의료/보건위생 등의 분야(23.1%)’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은 편이었음.

## 1.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인지도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매우+어느 정도)알고 있다' 37.1%			
질문 ▶	OO 님께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보다 못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3.6%	내용인지도: 37.1%	인지도 : 76.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3.5%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9.3%	-	-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23.3%	-	-
모름/무응답	0.3%	-	-
합계	100.0%	-	-

- 정부가 개도국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매우+어느 정도)'는 응답은 37.1%로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합산할 경우 공적개발원조 인지도는 76.4%로 조사됨.

【응답자 특성별 분석(%)】

		내용 인지도 (잘안다 + 어느 정도 안다)			내용 인지도 (잘안다 + 어느 정도 안다)
전체		37.1	전체		37.1
지역 별	서울	35.5	직 업 별	농림어업	39.9
	인천/경기	37.0		자영업	39.0
	대전/충청	32.1		블루칼라	37.8
	광주/전라	<b>50.3</b>		화이트칼라	<b>41.2</b>
	대구/경북	35.4		주부	34.0
	부산/울산/경남	35.5		학생	28.0
	강원/제주	36.2		무직/기타	42.7
성 별	남자	<b>40.4</b>	해 외	없음	32.5
	여자	34.0		1-2회	39.1
연 령 별	20대	24.6	경 험	3-5회	<b>48.2</b>
	30대	32.2		6회 이상	<b>44.3</b>
	40대	<b>42.4</b>	소 득 별	150만원이하	37.7
	50대이상	<b>46.1</b>		151-250만원	33.3
			251만원이상	40.1	

- 내용인지도는 ▶광주/전라(50.3%) ▶남자(40.4%) ▶40대(42.4%), 50대이상(46.1%) ▶화이트칼라(41.2%) ▶해외경험 3-5번(48.2%), 해외경험 6번 이상(44.3%)에서 높게 나타남.

## 2. 개도국 대외원조 제공 찬반

대외원조 제공 '찬성' 62.3% vs. '반대' 34.2%		
질문 ▶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찬성한다	6.7%	찬성: 62.3%
찬성하는 편이다	55.6%	
반대하는 편이다	28.8%	반대: 34.2%
적극 반대한다	5.4%	
모름/무응답	3.5%	-
합계	100.0%	-

- 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하는 여론이 62.3%로, '반대(34.2%)'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62.3	34.2	전체		62.3	34.2
지역별	서울	64.9	32.4	직업별	농림어업	74.8	19.7
	인천/경기	61.0	35.5		자영업	63.2	33.9
	대전/충청	64.5	34.5		블루칼라	48.4	<b>47.6</b>
	광주/전라	64.6	28.4		화이트칼라	<b>67.7</b>	30.2
	대구/경북	57.2	<b>37.7</b>		주부	59.3	36.2
	부산/울산/경남	62.5	34.8		학생	<b>70.7</b>	26.2
	강원/제주	57.6	40.0		무직/기타	60.4	37.6
성별	남자	62.5	35.0	해외	없음	60.1	36.5
	여자	62.1	33.5		1-2회	60.2	35.8
연령별	20대	63.7	33.5	경험	3-5회	<b>68.0</b>	28.9
	30대	61.7	35.1		6회 이상	<b>75.7</b>	22.8
	40대	<b>66.6</b>	30.0		소득별	150만원이하	54.6
	50대이상	58.5	<b>37.3</b>	151-250만원		63.1	33.3
				251만원이상	<b>65.4</b>	32.4	

- '찬성'은 ▶ 40 대(66.6%) ▶ 대재이상(67.5%) ▶ 화이트칼라(67.7%), 학생(70.7%) ▶ 251 만원이상 소득층(65.4%) ▶ 해외경험 3-5 번(68.0%), 해외경험 6 번이상(75.7%)에서 특히 높았음.
- '반대'는 ▶ 대구/경북(37.7%) ▶ 50 대이상(37.3%) ▶ 고졸(39.4%) ▶ 블루칼라(47.6%) ▶ 150 만원이하 소득층(4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찬성 이유, '인류 평화공존에 기여' 28.9%, '우리가 입은 과거 혜택' 27.7%	
질 문 ▶	(문 2 의 ①, ② 응답자만 질문) OO님께서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8.9%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다	27.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6%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18.6%
기타	0.5%
모름/무응답	0.7%
합계	100.0%

\*base : 대외원조 찬성층, n=623 명

-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로는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28.9%)'이라는 의견과,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27.7%)'이라는 견해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음.
-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은 ▶서울(35.6%) ▶40 대(35.1%) ▶화이트칼라(34.7%), 주부(33.6%) ▶해외여행 경험 6 번 이상(37.4%)에서 특히 높았음.
- '과거 우리도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은 ▶대구/경북(32.1%) ▶50 대이상(36.5%) ▶중졸이하(46.3%) ▶150 만원이하 소득층(3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나 위상 제고'라는 응답은 ▶광주/전라(34.4%) ▶20 대(28.3%), 30 대(27.6%) ▶대재이상(27.0%) ▶251 만원이상 소득층(26.9%) ▶해외경험 1-2 번(29.7%)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4.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대외원조 반대 이유,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아서' 76.1%	
질 문 ▶	(문 2 의 ③, ④ 응답자만 질문) OO님께서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76.1%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8.8%
원조가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8.7%
다른 나라의 문제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2%
기타	0.9%
모름/무응답	1.3%
합계	100.0%

\*base : 대외 원조 반대층, n=343 명

- 대외원조 제공 반대층은 주된 이유로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76.1%)'는 점을 지적해, 경제상황이 반대논리 형성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됨.
-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서울(81.5%) ▶여자(81.1%) ▶주부(83.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원조가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은 ▶50 대이상(12.8%) ▶151-250 만원 소득층(1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16.5%) ▶40 대(12.8%) ▶자영업(11.9%)에서 다소 높은 편이었음.

## 5. 대외원조 대상국 및 지원분야 결정시 우선 고려사항

대외원조 결정시 우선순위, '국제적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 49.0%		
질 문 ▶	정부가 대외원조의 대상국가나 지원분야를 결정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복수 응답)	
	전체(복수응답)	1순위
국제적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	49.0%	24.6%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	47.3%	39.5%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	38.3%	18.6%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33.6%	8.4%
개도국과의 정치외교적 협력관계 증진	25.7%	7.0%
모름/무응답	1.9%	1.9%

- 대외원조의 대상국가나 지원분야를 결정할 때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점으로 '국제적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응답이 49.0%(복수응답)로 높았으며,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47.3%로 많았음.
- 한편, '우리나라의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38.3%)'이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33.6%)' 같은 국익 우선 관점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 30 대와 40 대 연령층은 '인도주의 실천'이나 '개도국 지원'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20 대와 50 대 이상에서는 '국제적 지위 향상'이나 '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국익 관점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연령별 분석(%) - 복수응답 기준】

		인도주의 실천	개도국 빈곤 질병퇴치 지원	국가이미지 및 국위 선양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개도국과 협력관계 증진
전체		49.0	47.3	38.3	33.6	25.7
연령별	20대	45.9	42.1	<b>43.1</b>	32.6	<b>34.4</b>
	30대	<b>54.1</b>	<b>50.5</b>	38.2	30.6	23.4
	40대	<b>53.0</b>	<b>58.5</b>	32.9	29.5	22.5
	50대이상	43.9	40.0	39.2	<b>39.8</b>	23.8

## 6. 현재 대외원조 규모 평가

현재 대외원조 규모, '국력 감안할 때 확대해야' 47.6%		
질문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는 국민총소득의 0.06%, 1인당 8,000원 정도입니다.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력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외원조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읽어주세요: 참고로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의 0.2%, 1인당 약 3만원을 대외원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족하므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7.1%	확대 : 47.6%
현 수준보다 약간 확대해야 한다	40.5%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35.8%	-
축소되어야 한다	13.0%	-
모름/무응답	3.6%	-
합계	100.0%	-

-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민총소득의 0.06%(1인당 8천원 정도)인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대폭+약간)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높았으며, 35.8%는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분석(%)】

		확대해야	현재가 적절			확대해야	현재가 적절
전체		47.6	35.8	전체		47.6	35.8
지역별	서울	<b>51.0</b>	34.1	직업별	농림어업	45.6	35.7
	인천/경기	49.0	38.4		자영업	<b>56.3</b>	28.4
	대전/충청	45.9	<b>39.6</b>		블루칼라	38.5	39.7
	광주/전라	45.5	38.1		화이트칼라	<b>54.2</b>	31.1
	대구/경북	40.9	38.9		주부	43.4	<b>39.2</b>
	부산/울산/경남	46.1	33.7		학생	48.9	<b>39.7</b>
	강원/제주	52.4	14.3		무직/기타	42.5	38.5
성별	남자	49.8	33.0	해외	없음	45.7	37.0
	여자	45.3	38.5		1-2회	45.4	35.2
연령별	20대	<b>52.7</b>	36.7	경험	3-5회	<b>51.3</b>	39.4
	30대	49.0	34.9		6회 이상	<b>59.9</b>	26.6
	40대	<b>54.1</b>	32.9		소득별	150만원이하	40.7
	50대이상	37.8	38.2	151-250만원		47.1	38.9
				251만원이상	<b>51.7</b>	36.9	

- '확대해야 한다'는 ▶서울(51.0%) ▶20대(52.7%), 40대(54.1%) ▶대체 이상(52.9%) ▶자영업(56.3%), 화이트칼라(54.2%) ▶251만원이상 소득층(51.7%)에서 특히 높았음.

## 7. 향후 대외원조 규모 확대 찬반

대외원조 규모 확대, '찬성' 68.2% vs. '반대' 27.9%		
질문 ▶	현재 선진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은 평균 0.25%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 금액을 선진국의 약 절반 수준인 0.1%까지 늘이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찬성한다	12.8%	찬성: 68.2%
찬성하는 편이다	55.4%	
반대하는 편이다	23.5%	반대: 27.9%
적극 반대한다	4.4%	
모름/무응답	3.9%	-
합계	100.0%	-

- 앞으로 5년 후에 국민총소득 대비 0.1% 수준으로 대외원조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이 68.2%로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대외원조 확대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68.2	27.9	전체		68.2	27.9
지역별	서울	68.8	26.0	직업별	농림어업	68.6	25.7
	인천/경기	68.4	28.7		자영업	70.3	26.3
	대전/충청	64.3	<b>34.7</b>		블루칼라	61.7	<b>34.4</b>
	광주/전라	<b>72.9</b>	21.7		화이트칼라	<b>72.3</b>	27.7
	대구/경북	67.4	28.2		주부	65.3	28.6
	부산/울산/경남	66.4	28.9		학생	<b>72.9</b>	26.2
	강원/제주	69.0	28.6		무직/기타	67.6	25.3
	성별	남자	69.3		28.1	해외	없음
여자		67.0	27.7	1-2회	67.3		29.6
연령별	20대	71.0	27.6	경험	3-5회	<b>73.6</b>	22.1
	30대	62.7	<b>34.4</b>		6회 이상	<b>75.6</b>	20.8
	40대	<b>71.9</b>	23.6		소득별	150만원이하	63.1
	50대이상	67.7	26.3	151-250만원		<b>71.8</b>	26.8
					251만원이상	70.5	26.2

- '찬성'은 ▶광주/전라(72.9%) ▶40대(71.9%) ▶화이트칼라(72.3%), 학생(72.9%) ▶151-250만원 소득층(71.8%)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계층(3~5회:73.6%, 6회이상:75.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반대'는 ▶대전/충청(34.7%) ▶30대(34.4%) ▶블루칼라(34.4%)에서 비교적 높았음.

## 8. 대외원조의 국제사회 및 국익 기여도 평가

대외원조의 국제사회 문제해결 및 국익 기여도, '도움됨' 59.7%		
질 문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이나 국가이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8.9%	도움됨: 59.7%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	50.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7%	도움안됨: 35.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	
모름/무응답	4.9%	-
합 계	100.0%	-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이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9.7%로 높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은 35.4%로 조사됨.

【응답자 특성별 분석(%)】

		도움됨	도움 안됨			도움됨	도움 안됨
전체		59.7	35.4	전체		59.7	35.4
지역 별	서울	59.1	37.6	직 업 별	농림어업	73.1	22.7
	인천/경기	57.0	37.0		자영업	<b>63.3</b>	35.6
	대전/충청	<b>66.0</b>	28.5		블루칼라	56.2	<b>39.6</b>
	광주/전라	<b>63.9</b>	31.3		화이트칼라	60.5	37.9
	대구/경북	56.8	<b>41.5</b>		주부	59.7	31.6
	부산/울산/경남	60.7	31.7		학생	52.5	<b>47.5</b>
	강원/제주	58.1	39.5		무직/기타	59.1	31.0
성 별	남자	58.4	38.2	해 외 경 험	없음	61.5	34.1
	여자	61.0	32.6		1-2회	56.0	36.9
연 령 별	20대	52.6	<b>45.1</b>	3-5회	<b>64.8</b>	33.6	
	30대	60.5	35.5	6회 이상	55.9	<b>39.3</b>	
	40대	61.3	35.0	소 득 별	150만원이하	<b>63.3</b>	27.4
	50대이상	<b>62.9</b>	28.7		151-250만원	<b>64.6</b>	33.9
				251만원이상	58.3	38.4	

- 긍정평가는 ▶대전/충청(66.0%), 광주/전라(63.9%) ▶50대이상(62.9%) ▶고졸(63.3%) ▶자영업(63.3%) ▶151-250만원 소득층(64.6%) ▶해외여행 경험 3-5번(64.8%)에서 특히 높았음.
- 부정평가는 ▶대구/경북(41.5%) ▶20대(45.1%) ▶대재이상(40.1%) ▶학생(47.5%) ▶해외여행 경험 6번이상(3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9. 대외원조 최대 기여 분야

대외원조 기여 분야, '국제적 재난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 30.4%	
질 문 ▶	(문 8 의 ①, ② 응답자만 질문)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다음 중 어떤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제적 재난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	30.4%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	25.1%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15.9%
개도국과의 정치, 외교적 협력관계 증진	13.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2.9%
모름/무응답	2.5%
합계	100.0%

\*base : 대외원조 국익기여 긍정평가층, n=597 명

- 30.4%의 국민은 대외원조가 '국제적 재난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25.1%)',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15.9%)', '개도국과의 정치, 외교적 협력관계 증진(13.2%)'순으로 나타남.
- '국제적 재난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은 ▶서울(35.8%) ▶40 대(40.0%) ▶블루칼라(39.1%), 화이트칼라(35.3%) ▶251 만원이상 소득층(37.8%)에서 특히 높았음.
- '우리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응답은 ▶대전/충청(30.4%), 부산/울산/경남(31.3%) ▶20 대(32.2%) ▶학생(28.7%) ▶해외여행 경험 3-5 번(2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는 ▶대구/경북(19.4%) ▶50 대이상(21.2%) ▶중졸이하(21.5%) ▶주부(21.4%) ▶150 만원이하 소득층(21.9%)에서 비교적 높았음.

## 10. 대외원조 기여도 부정평가 이유

대외원조 기여도 미흡 이유, '원조가 비효과적이어서' 41.9%	
질 문 ▶	(문 8 의 ③, ④ 응답자만 질문)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41.9%
너무 우리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서	18.9%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서	17.6%
원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10.4%
원조할 기술과 인력이 부족해서	7.3%
모름/무응답	3.9%
합계	100.0%

\*base : 대외원조 국익기여 부정평가층, n=354 명

- 대외 원조가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 주된 이유로,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41.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비효과적인 원조'는 ▶서울(46.5%) ▶여자(51.5%) ▶20 대(47.9%) ▶대재 이상(46.3%) ▶주부(50.9%) ▶해외여행 경험 1-2 번(49.1%)에서 특히 높았음.
- '우리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서'라는 응답은 ▶자영업(28.1%) ▶150 만 원이하 소득층(28.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무관하게 이뤄져서'라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 (30.3%) ▶남자(21.7%) ▶30 대(26.5%) ▶화이트칼라(2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작은 원조규모' 때문이라는 응답은 ▶50 대이상(13.8%) ▶150 만원이하 소득층(15.2%)에서 다소 높았음.

## 11.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지역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아프리카 지역' 44.5%	
질 문 ▶	우리나라가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아프리카 지역	44.5%
아시아태평양 지역	24.4%
구소련 연방 등 중앙아시아 지역	11.0%
중동 지역	8.4%
중남미 지역	3.5%
동유럽 지역	2.8%
모름/무응답	5.4%
합계	100.0%

- 우리나라가 대외원조를 제공할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으로, 절반 가까운 44.5%의 응답자가 기아와 난민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을 꼽았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원조를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도 24.4%였음.
- 최근 이라크 전쟁 등으로 관심을 끌었던 '중동(8.4%)'이나 여타 지역에 대외원조를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소수였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구소련 연방 등 중앙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b>전체</b>		<b>44.5</b>	<b>24.4</b>	<b>11.0</b>	<b>8.4</b>
지역별	서울	44.9	<b>28.5</b>	6.8	7.1
	인천/경기	42.8	25.9	14.0	8.3
	대전/충청	<b>55.2</b>	19.6	8.0	7.7
	광주/전라	41.6	18.8	<b>14.7</b>	10.6
	대구/경북	<b>48.4</b>	27.3	9.3	4.6
	부산/울산/경남	41.5	23.4	11.8	10.3
	강원/제주	37.1	15.2	11.9	15.5
성별	남자	41.1	24.1	13.3	10.7
	여자	<b>47.9</b>	24.6	8.7	6.2
연령별	20대	32.1	<b>27.7</b>	12.7	<b>15.2</b>
	30대	40.0	26.3	<b>15.0</b>	6.2
	40대	<b>52.1</b>	24.1	9.9	4.9
	50대이상	<b>51.2</b>	20.6	7.3	8.3
직업별	농림어업	51.1	14.7	10.1	7.9
	자영업	42.9	19.7	<b>20.2</b>	10.4
	블루칼라	40.4	25.7	7.2	8.4
	화이트칼라	41.5	<b>27.5</b>	<b>15.2</b>	7.0
	주부	<b>53.3</b>	21.9	6.3	6.0
	학생	34.1	<b>28.5</b>	7.4	<b>18.3</b>
	무직/기타	39.8	30.0	10.5	6.6
해외여행 경험	없음	45.3	20.8	9.9	9.5
	1-2회	40.9	<b>28.9</b>	13.0	7.0
	3-5회	45.3	26.7	12.3	8.5
	6회 이상	<b>50.4</b>	<b>28.6</b>	8.9	7.0
소득별	150만원이하	42.6	23.2	9.5	11.0
	151-250만원	43.2	24.3	8.9	10.4
	251만원이상	<b>48.6</b>	25.4	10.8	6.7

- ‘아프리카 지역’은 ▶대전/충청(55.2%), 대구/경북(48.4%) ▶여자(47.9%) ▶40대(52.1%), 50대이상(51.2%) ▶고졸(48.7%) ▶주부(53.3%) ▶251만원이상 소득층(48.6%) ▶해외여행 경험 6번이상(50.4%)에서 특히 높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서울(28.5%) ▶20대(27.7%) ▶대재이상(29.1%) ▶학생(28.5%) ▶해외여행 경험 1-2번(2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구소련 연방 등 중앙 아시아 지역’은 ▶광주/전라(14.7%) ▶30대(15.0%) ▶자영업(20.2%), 화이트칼라(15.2%)에서 비교적 높았음.

## 12.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분야

향후 대외원조 중점 지원 분야, '아동/환경/인권보호 등의 분야' 26.4%	
질 문 ▶	우리나라가 대외원조를 제공할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아동보호,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의 분야	26.4%
재난구호 및 난민지원 등의 분야	23.3%
의료·보건위생 등의 분야	23.1%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15.1%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	10.8%
모름/무응답	1.3%
합계	100.0%

- 향후 대외원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아동/환경/인권보호 등의 분야'라고 응답한 경우가 26.4%로 가장 많았으며, '재난구호 및 난민지원 등의 분야(23.3%)'와 '의료/보건위생 분야(23.1%)'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은 수준이었음.
-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15.1%)'이나 '인프라 건설(10.8%)' 쪽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낮은 편이었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아동보호, 환경 보호, 인권보호 등의 분야	재난구호 및 난민지원 등의 분야	의료·보건위생 등의 분야
전체		26.4	23.3	23.1
지역별	서울	24.5	21.1	24.9
	인천/경기	25.5	24.7	21.7
	대전/충청	<b>37.1</b>	21.2	16.2
	광주/전라	23.4	25.1	<b>30.0</b>
	대구/경북	28.7	25.3	20.4
	부산/울산/경남	25.6	22.0	25.3
	강원/제주	21.4	25.7	20.5
성별	남자	19.4	24.4	23.0
	여자	<b>33.3</b>	22.2	23.2
연령별	20대	25.3	18.0	20.6
	30대	26.5	20.4	22.7
	40대	27.3	24.9	22.1
	50대이상	26.4	<b>28.1</b>	26.0
직업별	농림어업	24.7	34.9	27.2
	자영업	22.9	26.1	19.3
	블루칼라	28.6	22.1	<b>28.5</b>
	화이트칼라	20.9	21.1	23.9
	주부	<b>35.3</b>	23.7	22.0
	학생	21.8	16.9	20.3
	무직/기타	20.4	24.3	26.7
해외 경험	없음	28.7	23.9	23.0
	1-2회	25.3	21.1	23.3
	3-5회	23.2	<b>26.4</b>	24.9
	6회 이상	21.1	22.2	21.5
소득별	150만원이하	<b>31.9</b>	22.4	<b>28.2</b>
	151-250만원	26.8	23.1	22.6
	251만원이상	26.5	23.8	21.1

- ‘아동 보호,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의 분야’는 ▶대전/충청(37.1%) ▶여자(33.3%) ▶중졸 이하(34.0%) ▶주부(35.3%) ▶150만원이하 소득층(31.9%)에서 특히 높았음.
- ‘재난 구호 및 난민지원 등의 분야’는 ▶50대이상(28.1%) ▶해외여행 3-5번 경험자(2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의료 보건 위생 등의 분야’는 ▶광주/전라(30.0%) ▶블루칼라(28.5%)에서 비교적 높았음.